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여전히 ‘기승’

관련법 강화 불구 안전신문고 8개월새 1천600여건 신고
화재진압 중요시설...행정당국 적극 단속·엄중 처벌해야

광주지역에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인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늘고 있다.

소방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소화전 앞 연석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 표시’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 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 동구 불로동 웨딩의 거리와 광주전변 일대 소화전 주변.

이 곳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줄을 이었다. 도로 옆 연석에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차량들이 그 구간을 뺏뺏이 차지하고 있었다.

웨딩의 거리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한 방향 2차선 중 아예 한 차선을 가로막아 소방차가 통과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고, 광주전변 구간 역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호스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

아 보였다.

더군다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는 이미 주차된 차량으로 가려져 있어 어디에 소방용수시설이 있는지, 어디가 주정차금지 구역인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이 일대는 주점과 식당 등이 주로 분포한 지역으로, 차량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시간이 늦춰질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시간이 지연될수록 재산피해를 비롯한 인명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적색

으로 칠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보소 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시 과태료를 2배 인상했다.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건수를 보면 지난 8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접수된 불법주정차 건수는 총 1천51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4월 55건, 5월, 113건, 6월 116건, 7월 97



광주의 한 소화전 주변 도로 옆 연석 적색 라인에 쓰여진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글씨가 무색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있다.

건, 8월 239건, 9월 269건, 10월 276건, 11월 351건으로, 8월부터 200건을 훌쩍 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93건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소방청·지자체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보이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연합뉴스



불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12일 오전광주북구의한아파트앞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과 인솔교사, 운전자 등은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 “헌법 존립·헌정 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소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길(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광주사태 책임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정부에 전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22일 전남대 명노근·송기숙 교수는 전남대 학생 10여명, 조선대

학생 10여명과 함께 옛 전남도청에 들어갔다.

이들 교수는 전남대 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가 위원장을 맡아 학생수습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김씨와 시민대표 등은 계엄분소장을 만나 5·18이 공수부대 과잉진압 때문임을 인정하고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5·18로 인해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계엄사 관계자는 무기를 수거해

반납하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중간에 일부가 석방되자 무기 일부를 회수에 반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습위원들과 치안 유지 활동을 지속하며 매일같이 열린던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에서 당국과의 협의 사항을 보고했다.

김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로 3년 형이 확정됐다. /오승지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 변호사들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김지후(45·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류종명(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상재(46·연수원 3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 ▲정재희(45·연수원 31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최두호(42·연수원 32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김재향(45·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지후·류종명·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이들 법관은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사건정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신속하게 재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은 부장판사급 4명, 판사급

1명이었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사례로는 소송관계인에게 냉소적으로 언행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대리인을 당사자 취급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무례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고지된 시간보다 1~2시간 지연돼 재판이 시작된 경우도 있다.

광주변호사회원 505명 중 205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292명을 대상으로 했다.

최종 평가는 15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점수를 기준으로 광주지법·고법 5명, 순천지원·목포지원 각각 1명을 우수법관으로, 전체 중 5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3.52점으로 지난해 83.36점과 비슷했다.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법원의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승지 기자

“너 몇 살이야!”

○...광주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이 식당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45분께 북구 북문대로 인근 한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B(59)씨에 다가

가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너 몇 살이야’고 들은 B씨가 ‘반말하지 말아라. 너 몇 살이야’라고 답하자 A씨가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은 벌였다”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찾아가서 반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최환준 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2020학년도 전액무료 훈련

1월 중 개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제품디자인(3D 프린팅)
스마트자동화제어	전기공사(내선공사)
금속재료용접(특수용접)	한식.양식.중식.일식
자동차부품조립 및 관리	제과.제빵.바리스타 / 네일.메이컵.피부
타일+조적·미장 / 타일 (주말, 야간반)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자모집(062-369-1829)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견학 및 접수 가능!!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

CMYK